‘신비 만족향 선경’… 무송빙설카니발 개막

—길림시 룡담구 정품 관광 코스 출시

행사 개막식 무대에서 사만무용(萨满舞蹈)을 선보이고 있다.

개막식에서 동북 양걸춤을 추고 있는 현지 공연자들

최근, 한툰·무송도 성에꽃 관상 및 ‘무송빙설카니발’ 계렬 행사가 길림시 룡담구 무송도에서 개막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우라공주’ 순시송가(出巡颂歌), 만족대양걸(大秧歌), 우라진한군기단북춤(乌拉陈汉军旗单鼓舞) 등 만족 전통 공연이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룡담구는 이번 겨울철을 맞이해 무송도에 겨울포획체험구역, 무송표류구역, 이룡희주문패(二龙戏珠门牌) 등을 새로 건설했다.

이 밖에 무송비천쇼와 룡봉비천쇼 또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무송도에서는 정기적으로 민속 공연을 하며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밤공연도 펼친다.

이날 이곳에 놀러 온 시민 강녀사는 “길림 시민으로서 외지 친구들에게 강성의 민속문화, 빙설관광을 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춘에서 온 관광객 하녀사는 섬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개막식 활동은 아주 훌륭했다. 무송도 감상하고 민속도 다양하게 체험하겠다.”고 말했다.

룡담구 관련 책임자는 현장에서 관광상품과 정품 코스를 소개하였다.

올겨울, 첫눈의 강림을 계기로 길림시 룡담구는 서부력사문화, 자연풍경융합발전구역, 특색레저융합발전구역 등 관광 코스를 내놓았다.

무송도에서의 무송 관상은 룡담구 ‘무송빙설카니발’ 계렬 행사중의 하나이다.

최근년간 길림시 룡담구는 빙설문화관광자원을 깊이 파고들고 ‘빙설+’를 둘러싸고 힘써 ‘신비 만족향 무송선경’ 관광목적지 브랜드를 힘써 구축했다.

룡담구에서는 또 ‘우라만족 설 쇠기’, ‘빙설대회’ 등을 출시하여 우라고진, 무송도, 아라디조선족풍정촌, 룡담산공원, 강북공원 등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특색을 과시하고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되는 관광상품을 더욱 많이 구축하게 된다.

길림시 룡담구는 독특한 빙설자원과 문화 매력으로 외지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 송화강넷

전국 대학생 스키운동 초청경기 길림시에서

일전, 2024—2025 길림·국제고산/스노보드(单板) 도전(북대호역) 및 전국 대학생 스키운동 초청경기가 길림시 북대호스키장에서 개막되였다.

이번 대회는 중국스키협회의 지도하에 길림성체육국, 길림성교육청, 길림체육학원, 길림시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체육국 체육산업발전지도쎈터, 길림체육학원 빙설(산업)학원, 길림성스키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북대호스키장에서 협찬했다.

대회에 전국 26개 대학교의 117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알파인스키 대회전,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종목에서 치렬한 각축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인터넷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했으며 대회 기간에 또 청소년과 우승자 대면 활동을 조직했는데 리견유, 주양, 한천우, 오청택 등 4명의 올림픽 우승자와 세계 우승자들이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스키기능 교수지도 등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스키운동 참여 열정을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 / 송화강넷

322명 문예애호가 공익강습에 참가

2024년도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가을철 공익강습 원만히

12월 6일 오전,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본관 다기능실에서 진행된 공익강습 수료 회보공연을 마감으로 ‘2024년도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가을철 공익강습 활동’이 원만히 막을 내렸다.

이번 강습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있게 관철락착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대중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문화혜민, 문화락민’을 실현하고 나아가 전민예술보급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강습 내용은 조선족무용, 몽골족무용, 라틴무용, 조선족민요, 조선족타악, 조선족퉁소, 조선족가야금 등 8개 과목을 포함, 도합 10개 학급을 개설하여 소수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과시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수민족 예술문화를 료해하고 사랑하며 전승하도록 하였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 등 길림시 조선족 사회단체의 문예골간들을 비롯한 길림지역 322명 문예애호가들이 이번 공익강습 활동에 참가했다.

이번 공익강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을 채용하여 더욱 많은 문예애호가들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관심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호평을 받았다.

/ 차영국기자

강성 ‘춤군’들, 전국 경기서 자랑스런 성적 취득

제31회 전국체육무용선수권대회에서 길림시에서 파견한 두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제31회 전국체육무용선수권대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소성 강음시에서 개최되였다. 중국 체육무용의 최고위급 경기로서의 전국체육무용선수권대회는 중국 체육무용의 중견 력량을 양성하는 중요한 플래트홈일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자아향상과 꿈을 실현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으로 221개 대표팀이 출전하고 연인원 5,000여 명이 각종 경기에 참여했다. 길림시체육무용협회는 길림시체육운동학교, 길림시영영수일운체육무용구락부 등 두 팀의 32명 선수를 조직하여 경기에 참가했다.

길림시체육운동학교 강동기선수는 스탠더드댄스(国标舞)16세 이하 싱글 종목별 탱고 시합에서 우승했다. 길림시영영수일운체육무용구락부 룡천심선수는 스탠더드댄스 10세 및 그 이하 1인 종목인 룸바(伦巴) 경기에서 1등상을 수상하고 이 학교 리금의, 뢰우동 선수는 스탠더드댄스 10세 및 그 이하 1인 종목인 카우보이(牛仔) 경기에서 각각 1등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의 최고급 조별인 중국 프로 라틴댄스에서 우승한 리명헌, 주완정은 길림시체육운동학교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송화강넷

겨울철 길림시 관광, 빼놓으면 아쉬운 코스

올 들어 첫눈이 길림시 2024—2025 빙설시즌의 서막을 열었다. 길림시 겨울관광의 매력을 만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있으니 성에꽃 관광 명소인 무송도, 만족 집거지 한툰과 만족 발상지로 꼽히는 우라가진, 코스가 완만해서 초보 스키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명산오아시스스키장 등을 들 수 있다.

성에꽃 관광 명소—무송도

무송도관광지는 길림시 룡담구 우라가진 한툰촌에 위치해있는데 부지면적이 10평방키로메터로서 장백산, 흑룡강 설향과 함께 동북 빙설관광의 ‘백금삼각주’로 불리우고 있으며 국가 3A급 관광지이다.

이곳의 성에꽃은 출현 빈도가 높고 두께가 크며 지속 시간이 길뿐더러 섬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모양새가 기이하고 무성하여 옥수경화(玉树琼花)의 인간선경으로 불리고 있다.

관광지에는 2만평방메터의 빙설대세계, 무송표류구역, 빙상 범퍼카, 눈밭 회전놀이 등 종목이 설치되여있으며 겨울철 물고기 포획, 만족 양걸춤 등 활동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이 만족의 민속문화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쇼, 불꽃쇼, 철화놀이, 화룡 등 밤놀이 종목을 새로 추가하여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주변에는 한툰민속촌, 홍원가정농장, 봉길원 우라만족 샤브샤브, 부차씨 샤브샤브 등이 있다.

만족 시골 풍정—한툰

한툰은 청나라 순치 14년에 생겨났다. 만족 집거지로서 력사 발전 과정에서 중후한 만족문화가 축적되였는데 가축 공물, 전통 어렵, 만족 음식, 만족 체육오락 등 풍습이 온전하게 전승되여왔다.

한툰촌은 우월한 자연자원과 민속풍토로 선후로 여러가지 영예를 획득하였다. 2016년 전국 농촌관광 시범촌으로 선정되고 2017년 ‘중국 관광 총평 순위 년도 인기 아름다운 농촌’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같은 해에 또 ‘중국 소수민족 특색촌락’으로 명명되였으며 2019년에는 ‘전국 농촌관광 중점촌’ 명부에 선정, 2021년에는 ‘길림성 중점 농촌관광 정품촌’과 ‘옥토번화’ 길림시 10대 농촌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주변에 무송도, 한툰소극장, 만주족 특색 농가 음식이 있어 한툰 민박집에서 농촌 음식을 맛보고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

만족의 중요한 발상지—우라가만족진

우라가만족진은 중국 력사 명진으로 만족의 중요한 발상지중 하나이며 청나라 최대의 공물관리기구인 우라총관 관아의 소재지로서 우라부고성, ‘3부 1사’ 등 많은 문물고적이 있다.

청나라 강희황제는 우라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두차례의 동순에서 모두 이곳에 와서 도합 8일간 머물면서 많은 전설을 남겼다. 우라가는 그 특수한 지위로 만족의 전통 풍속을 잘 보존하여 전국에서 보기 드문 만족 풍토가 짙은 구역으로 되였다.

우라만족 샤브샤브, 우라만족 복식, 전지, 만족어서예, 체육운동, 양걸 등 풍속 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는 무송도, 한툰민속촌, 우라부고성유적지 등이 있다.

생태관광휴양지—명산오아시스

길림시 룡담구 룡산로에 있는 명산오아시스생태관광휴양지는 국가 3A급 관광지, 길림성 5A급 농촌관광 경영단위로서 록색료식, 레저오락, 관광휴가, 생태관광, 민속전시 등을 일체화한 종합적인 생태관광풍경구이다.

휴양지는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교통이 편리한바 주도로에서 2키로메터, 길림시 기차역 동쪽 출구에서 9.5키로메터 떨어져있다. 관광지는 겨울철에 빙설운동을 위주로 하는데 스키장은 산을 따라 총면적이 12만평방메터이고 최고 해발고가 550메터이며 경사도는 5~35도 사이, 총 길이는 1,880메터로 아동코스, 초급코스, 중급코스, 고급코스가 있다.

휴양지내에는 국가급 스노보드공원이 설치되여있는데 스노보드 운동구역은 경사도가 가파르고 도약대가 높으며 전문적인 장애물 시설이 갖추어져 도전성이 높다. 야간에도 스키장을 개방하는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 스키애호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차영국기자

화전의 명특산물 룡가공항에서 만나다

일전, ‘대동산수는 천하를 맞이하고 길림성 화전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주제로 한 화전시 명특산물 전문 추천소개회가 룡가공항 ‘화전인상’ 도시전시장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추천소개회는 빙설자원을 빌어 산업경제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화전의 매력을 과시하며 온라인 생방송으로 특산물 판매를 이끌어 빙설문화관광의 구매 고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은 부스 형식으로 화전의 인삼, 자작나무수액, 꿀흑삼, 화전 소고기 등 20여종의 명특산물을 전시했다. ‘화전인상’은 화전이 올해 길림성의 중요한 항공 문호인 룡가공항에 설치한 도시전시장으로서 화전이 대외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전시장에는 LED 스크린, 터치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화전시의 도시 풍모, 문화관광, 명특산물, 투자유치 등을 영상으로 홍보했다. 화전 빙설산업 자원, 발전 잠재력 및 투자 기회에 대한 추천소개를 통해 농업상업관광의 융합 발전과 생태 우세를 내세우고 빙천설지를 금산과 은산으로 만드는 생동한 장면을 보여주어 관객들로 하여금 화전 빙설문화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화전시상무국 책임자는 화전은 길림성 2024—2025 새 빙설시즌 개막 및 제30회 길림무송빙설축제를 계기로 룡가공항에서 성공적으로 설명회를 조직하여 형제도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화전 특산품 전시를 통해 빙설 전 산업사슬의 체인을 연장하고 새로운 빙설경제 사슬을 강화함으로써 화전 경제사회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성일보

길림석유화학 년간 120만톤 에틸렌 설비 설치 완료

일전, 길림석유화학 정유화학공업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 프로젝트의 핵심 장치, 유기화학공업의 원천 장치인 년산 120만톤 에틸렌(乙烯) 장치 559대의 동정설비가 전부 설치되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교부되는 데 기초를 닦아놓았다.

새로 건설한 장치는 새로운 저에너지소모 에틸렌 분리 기술을 채용하여 생산운행 에너지 소모가 더욱 합리적이고 전통 장치에 비해 투입이 더욱 낮으며 에틸렌 수확률이 더욱 높아 오염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장치는 매년 폴리에틸렌 120만톤, 폴리프로펠렌 58만 7,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에틸렌 생산능력과 화학공업 규모가 국내 선진 수준에 도달한다. / 강성일보